

주한 미국공사의 독립협회운동 인식과 대응

현광호(성균관대학교)

논문 요약

주한 미국공사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을 모델로 서구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를 수준 높은 정치단체로 규정했고, 내각 교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은 여권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가 황제와의 타협을 지지했으므로 황제권 도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알렌이 외무대신에게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미국인들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친러파의 지도자인 조병식을 부패한 인물이라고 인식했다.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 및 한국인 개신교도들의 만민공동회 참가를 강력 저지했다. 알렌은 미국 정부의 훈령을 받아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을 저지했다. 고종은 알렌의 조언을 중시했으므로 알렌의 조언은 고종의 독립협회 해산 조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 알렌, 고종,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미국, 여권, 황제권, 조병식, 보부상, 선교사, 개신교도

I. 머리말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창립된 이후 독립문 건립,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계몽운동에 앞장섰다.¹⁾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열강의 이권 요구에 대해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열강은 독립협회가 한국 국민의 지지를 넓혀나가자 독립협회 운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독립협회는 수구파와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1898년 12월 무력에 의해 해산됐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수구파 정권의 무력 진압, 독립협회 지도층의 권력 장악 의지의 결여 등 국내적 요인들이 독립협회운동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열강의 간섭 등 국외적 요인들에 독립협회운동의 좌절을 돌리는 시각도 있다. 열강의 간섭을 주요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러시아, 일본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²⁾ 1898년 현재 공사급의 외교관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였다. 고종은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고려했을 때 대한제국 주재 열강 공사와 상의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열강의 독립협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강은 독립협회운동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프, 영, 미 등 다른 열강 공사의 독립협회에 대한 입장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중 최근 프랑스 공사의 독립협회에 대한 대응을 구명한 연구가 제출됐다.³⁾

본 연구는 주한 미국공사의 독립협회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과정을 통해 주한 미국공사의 대응은 독립협회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1) 독립협회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 독립협회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5, 1995 참조. 그 뒤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신재, “독립협회의 대외인식과 자주국권론,” 『경주사학』 17, 1998; 오태진, “독립협회의 대외인식과 민족교육론,” 『한국교육사학』 21, 1999; 임선화, “선교사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인식,” 『전남사학』 14, 2000; 최형익,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구한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정신문화연구』 96, 2004; 이신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성 논의 검토,” 『사람』 39, 2011.

2) 이민원, “독립협회에 대한 열강공사의 간섭,” 『정계사학』 2, 1985.

3) 현광호, “프랑스공사의 독립협회운동 인식,” 『인문학연구』 46, 2013.

주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독립협회 해산을 전후한 시기 주한 미국공사는 알렌(H.N.Allen)이었다. 종래 알렌에 대한 연구는 경제이권과 선교사 문제, 친러반일 활동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⁴⁾ 그 결과 알렌의 독립협회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알렌은 1897년 7월 주한 미국공사로 임명된 뒤 1905년 9월까지 재직했다. 알렌은 1883년 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고종은 1890년 주한 미국공사에게 알렌을 주한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시켜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 알렌은 을미사변 등 격변기 때마다 고종을 보호하는 입장을 보여 한층 고종의 신임을 받았다. 고종은 미국 정부가 중립적인 견지에서 한국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고종은 알렌에게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수차 요청했다. 아울러 고종은 국내의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알렌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했으므로 알렌의 외교적 비중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렌은 독립협회를 어떠한 단체로 인식했고 독립협회운동에는 어떤 방침으로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알렌은 독립협회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알렌은 독립협회의 황제권 도전, 노륙법 반대, 의회설립운동, 여성운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 보았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또 알렌은 용병 창설, 보부상 동원, 보수파 중용 등 고종의 독립협회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의 격변기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독립협회운동의 심층적 이해에 일정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4) 알렌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해서는 김원모, "알렌의 한국독립보전정책," 『동양학』 20, 1990; 손정숙,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의 외교활동," 『이화사학연구』 31, 2004 참고.

II. 독립협회 지도부 인식

한국 주재 외교 사절들은 친미파가 독립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조던(J.N. Jordan) 주한 영국공사는 친미세력이 독립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파악했으며⁵⁾, 스페에르(Alexei de Speyer) 주한 러시아공사는 미국 공사관이 배후에서 독립협회를 교사하고 있다고 단정했다.⁶⁾ 플랑시(Collin de Plancy) 주한 프랑스공사는 친미파가 독립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했다.⁷⁾

알렌 주한 미국공사도 친미파가 독립협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실제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알렌의 협력자들이었다.⁸⁾ 미국 공사관은 한국에서 정치 세력을 육성했다. 그 결과 미국 공사는 러시아 공사, 일본 공사와 함께 한국 정계에서 일정한 세력을 보유했다.⁹⁾ 친미파가 한국 정계에 등장한 것은 워싱턴에 소재한 주미공사관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박정양, 이완용, 이하영, 이채연 등 주미공사 출신들은 귀국한 뒤 고종의 총애를 얻어 일정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친미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친미파는 아관파천기에도 근왕주의자로서 세력을 유지했다. 친미파는 독립협회 창설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즉 이완용은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 창립 때 위원장, 이채연, 이상재, 민상호는 독립협회 창립 위원이었다.¹⁰⁾

알렌은 독립협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것은 첫째, 독립협회가 미국

5) 『영국외무성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9, 서울: 동광출판사, 1997, No.76. 1898년 2월 24일, pp. 42~43.

6) 박종효 옮김,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1898년 2월 26일, pp. 244~245.

7) 국사편찬위원회 옮김, 『프랑스외무부문서』 8, 2009, 1898년 3월 3일, pp. 127~128.

8) 해명턴 지음, 『개화기의 한미관계』, 서울: 일조각, 1973, p. 313.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5(이하 『일사기록』으로 약칭) 13, 기밀 제20호, 1899년 3월 28일, pp. 240~241; 『일사기록』 13, 기밀 제36호, 1899년 5월 17일, pp. 276~281.

파블로프 주한 러시아공사는 본국 정부에 한국의 정파들은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그들의 야망을 달성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국의 정파들은 외국 대표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권 허여에 적극 협력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외국 대표들도 한국의 이권을 획득하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는 정파에 협력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김종현 옮김, 『러시아문서 번역집』 2, 서울: 선인, 2011, pp. 89~91.

10) 한홍수,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사』 41, 1999, pp. 214~215.

에 대해 호의적인 단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본국 정부에 독립협회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독립협회의 현재의 회원들은 최근 회의에서 자유를 옹호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행한 직후 그들의 노비들을 자발적으로 해방시켰다. 독립협회는 한국 관리들 중에서 최고의 자질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했다. 만일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국의 큰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독립협회는 미국을 모델로 채택한 것 같다.¹¹⁾

알렌은 독립협회가 미국을 모델로 근대화를 추구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그는 독립협회의 지도부는 한국 관리 중에서 최고의 인재로 구성되어 한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알렌은 독립협회가 친미파가 다수 포함된 내각을 구성하려 한다고 인식했다. 즉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12일 내각교체 때 국정개혁을 위하여 민영환·박정양 등을 의정부대신 후보로 추천했다.¹²⁾ 알렌은 그 때 입각한 윤치호, 박정양, 민영환, 민상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알렌은 윤치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받은 교육으로 독립신문에서 수준 높은 논설을 쓰고 있다고 호평했다. 박정양에 대해서는 초대 주미한국공사를 지낸 인물이며, 민영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공사직을 수행한 경력의 소유자로 평가했다. 민상호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 국제우편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고 인식했다. 알렌은 한국은 과거 그같은 최상의 내각을 구성한 바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알렌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주미공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혹은 미국의 근대 시설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친미파를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는 인재라고 확신했다. 알렌은 독립협회가 친미파 중심의 내각 구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인식했다.¹³⁾ 알렌은 독립협

회가 친미파가 주도하는 내각을 강력히 지지하자 독립협회에 대해 호감을 드러냈다. 알렌은 후술하는 노륙법 반대운동에서도 독립협회가 박정양, 민영환 등 한국 최고 인물을 입각시켰다고 평가했다.¹⁴⁾

그 뒤에도 알렌은 친미파 인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없었다. 1902년 5월 유길준은 강석호·이용익 등 황실측근세력을 제거한 뒤 신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쿠데타를 기획하였다.¹⁵⁾ 유길준은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한규설·민영환·김가진·권재형·이완용·박제순·윤치호 등과 제휴하여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려 했다.¹⁶⁾ 영국 공사는 유길준의 포섭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은 개혁 운동에 호의적인 편으로서 국정 운영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다.¹⁷⁾ 알렌은 친미파가 다수 포함된 내각후보자들은 한국 정계에서 최고의 대신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렌은 쿠데타 연루설로 인해 체포위기에 처한 후보자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전개했다.¹⁸⁾

독립협회운동을 지도한 또 다른 인물은 서재필이었다. 그는 독립협회 창립을 주도했고 독립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문일평은 서재필을 윤치호, 이상재와 함께 독립협회의 3대 거두로 평가했다.¹⁹⁾ 서재필은 1895년 12월 귀국한 뒤 중추원고문으로 활동했다. 고종은 서재필이 독립협회의 반정부 활동을 사주한다고 판단하고 1898년 4월 해고 조치했다. 결국 서재필은 5월 15일 미국으로 귀국했다. 알렌은 한국 정부와 서재필의 잔여봉급 지불을 교섭했다.²⁰⁾ 알렌은 서재필이 독립신문의 편집인으로서 독립협회에서 저명인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알렌은 서재필이 독립협회의 상소에 공감을 표명한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의 면직을 요청했다

11) Burnett, Scott S.,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I(1896-1905)*,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이하 K-A-R III로 약칭), No. 33. 1897년 11월 13일, p. 47.

12) 신용하, 『독립협회연구(상)』, 서울: 일조각, 2006, pp. 431~432.

13) K-A-R III, No. 152. 1898년 10월 13일, pp. 52~53.

14) 위의 책.

15) 윤병희, “일본 망명시절 유길준의 쿠데타음모사건.” 『한국근현대사연구』 3, 1995, pp. 37~39.

16) 『고종실록』 권44, 광무 8년 3월 11일.

17)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12, No. 49, 1902년 5월 8일, pp. 321~322.

18) K-A-R III, No. 455, 1902년 5월 2일, p. 79.

19) 한홍수,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사』 41, 1999, pp. 224.

20) 정교, 『대한계년사』 3, 서울: 소명, 2004, p. 51.

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때 스페에르 러시아 공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서재필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다고 인식하고 알렌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에 대해 알렌은 서재필은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다른 고문처럼 자유롭게 자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알렌은 스페에르가 그 의견에 동의했다고 인식했다.²¹⁾ 알렌은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주도하고 있음을 인지했고,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서재필을 적극 비호했다. 그것은 알렌이 독립협회에 긍정적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알렌은 독립협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므로 독립협회 지도자를 적극 비호한 것으로 보였다. 고종은 독립협회가 공화정체 수립을 모의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1898년 11월 5일 독립협회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경무청은 독립협회 간부 중 17명을 체포했다. 17명의 체포 지도자중 한 명인 윤치호는 예배당과 학교로 사용 중인 미국인의 집에 피신했다. 알렌은 외부와 교섭하여 윤치호를 다시 그 미국인 집으로 가도록 조치했다. 그 뒤 윤치호는 자발적으로 경무청에 출두했다.²²⁾ 그것은 알렌이 독립협회 지도자를 적극 비호한 것을 보여준다.

알렌은 독립협회의 회의 참석 요청에도 성실하게 응했다. 독립협회는 1897년 9월 1일 고종의 요청으로 개국기원절 경축식을 개최했으며 황제 만세의 구호를 외쳤다.²³⁾ 두 달 뒤 독립협회는 고종의 요청으로 독립관에서 11월 11일 대한제국 국호 채택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 회원은 간절하게 알렌의 참석을 요청했다. 알렌은 그 날 영사 업무로 제물포에 갈 예정이었지만 방문을 연기하고 경축식에 참석했다.²⁴⁾ 알렌은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을 강행했다. 그것은 그가 독립협회에 대해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알렌이 참석한 집회는 고종의 요청으로 개최됐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알렌은 고종과 독립협회가 협력관계에 있을 때 독립

협회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의미한다. 알렌은 고종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다. 그러므로 그는 독립협회가 황제와의 타협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알렌이 고종은 물론 독립협회 지도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은 미국의 국익 추구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알렌은 미국인의 이권 획득을 적극 지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전기, 전차 계약을 체결했고²⁵⁾, 미국에 대한 이권 허여 요구에 협조하는 외부대신을 선호했다. 그는 박계순이 1898년 8월 27일 외부대신 서리에 취임하자 크게 환영했다. 그것은 박계순이 타협적이며 외국사절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²⁶⁾ 알렌은 독립협회가 미국인의 이권 획득을 지지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외교단과 미국인 선교단은 1896년 독립협회 창립에 기여했고, 그 해 미국인은 운산금광 채굴권 등 몇 개의 이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²⁷⁾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에서 유학한 경력과 주미공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또 그는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을 모델로 서구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나아가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이권 허여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III. 독립협회운동 평가

1. 황제권 도전 평가

독립협회는 7월 3일 내각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직후 독립협회 회장

21) K-A-R III, No. 77. 1898년 2월 26일, pp. 47~48.

22)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23) 정교, 『대한제년사』 3, 소명, p. 124.

24) K-A-R III, No. 33. 1897년 11월 13일, p. 47.

25) K-A-R III, No. 77. 1898년 2월 26일, pp. 47~48.

26) 『프랑스문서』 8, 1898년 10월 9일, p. 227.

27) 김종현 옮김, 『러시아문서 번역집』 2, 서울: 선인, 2011, pp. 89~91.

을 지냈던 안경수는 1898년 7월 11일 경 일부 대신들과 연합하여 황태자 대리청정과 내각 교체를 기도했다. 안경수의 쿠데타 기도는 이 사건에 박영효가 관련되어 있었고, 안경수 자신이 참여했던 갑오개혁이 군주권을 제한한 정치체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⁸⁾ 고종은 이 사건의 목적은 의화군이나 이준용에게 양위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12일 이 사건과 연루된 진보파 관리들을 체포했다.²⁹⁾ 고종은 이 사건의 연루자들과 정적 관계에 있는 조병식을 법무대신에 임명했다. 조병식은 그 사건을 기회로 독립협회를 궤멸시키려 획책했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은 대부분 독립협회 소속이었다.³⁰⁾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제출함으로써 안경수 사건에 연루된 각료들을 비호했다. 또 독립협회 회원은 조병식의 면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여 21일 조병식을 면직하게 했다.³¹⁾ 그 뒤 독립협회는 황실측근인 이용익의 숙청을 기도했다. 독립협회는 이용익을 광산을 개발하여 전국에 해독을 끼쳤고 무리한 인삼정책으로 인삼재배농민들에게 원성을 샀으며 화폐의 남주로 전국의 혈맥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8월 3일 이용익을 고등재판소에 재판을 청원했다.³²⁾ 알렌은 이상과 같은 서울의 정치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

독립협회는 최근 매우 중요한 문제를 떠안았다. 독립협회는 과거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위험성에 처했다. 그 결과 독립협회는 서울과 한국의 평화에 위협 요인으로 간주됐다. 독립협회는 7월 악명 높은 조병식의 제거에 성공했다. 독립협회는 최근 그의 동료 이용익을 제거하고자 진력한다. 최근 독립협회 위원회와 5,6명의 각료들은 그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INDEPENDENT는 독립협회에 신증을 기하라고 경고하는 기사를 썼다. 그레이트하우스가 독립협회에서 연설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에 대해 언급했고, 러시아, 독일 외교사절은 본인에게 그 연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때문에 그 연설이 게재된 한글 신문을 번역하여 보낸다. 그레이트하우스는 그 담화 기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받았다. 그의 행보는 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는 그같은 담화를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정부가 그의 견해에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³³⁾

알렌은 독립협회가 조병식에 이어 고종의 측근인 이용익의 숙청을 시도하자 한국의 평화를 해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알렌은 독립협회는 급진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고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가 독립협회에 대해 중대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레이트하우스는 7월 29일 독립협회에 출석하여 독립협회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독립협회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담화는 독립신문의 8월 1일자 논설 난에 <고문관 권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그의 담화의 요지는 “한국은 아시아 세계의 열쇠이다. 동서양 각국은 한국의 틈을 엿보고 있다. 현재 두 국가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보호국으로 전략하면 한국인은 타국 군인, 경찰의 핍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독립협회는 나라의 형편을 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³⁴⁾ 그레이트하우스가 연설을 한 시점은 독립협회가 이용익을 제거하고자 분주히 움직인 때였다.

그레이트하우스는 과거 고종이 정국 주도를 목표로 창설한 내무부의 협판을 지낸 바 있었던 황제권 강화론자였다. 그러므로 그레이트하우스는 황제의 측근인 이용익을 비호했고 황제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유지한 윤치호와 제휴했다.³⁵⁾ 알렌은 그레이트하우스가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을 가진 다음에 그같은 담화를 한 것으로 이해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체로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독립협회 회원 중 급진파는 황제

28) 송경원, “한말 안경수의 정치활동과 대외인식,” 『한국사상사학』 8, 1997, p. 256.

29)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9, No. 126. 1898년 7월 15일, p. 95.

30) 『프랑스문서』 8, 1898년 8월 16일, pp. 215~216.

31)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9, No. 128. 1898년 7월 24일, pp. 96~97.

32) 『대한계년사』 3, p. 102.

33) K-A-R III, No. 131. 1898년 8월 4일, p. 49.

34) “고문관 권념,” 『독립신문』 1998년 8월 1일.

35) 정교, 『대한계년사』 3, 소명, p. 148.

측근의 숙청을 시도한다고 단정했다. 그 무렵 조던 영국 공사도 향후 독립협회가 혁명적 수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급진파의 득세 가능성을 예측했다.³⁶⁾ 알렌은 독립협회가 황제와의 타협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것을 기대했다. 그같은 시각에서 알렌이 독립협회의 황제권 도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여겨진다.

2. 노륙법 반대운동 평가

러시아 공사관의 통역관 김홍륙은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후원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했다. 그에 분개한 궁내부대신 이재순은 사람을 시켜 1898년 2월 22일 궁중출입문 옆에서 김홍륙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³⁷⁾ 알렌은 고종은 김홍륙을 기피한 결과 친척인 이재순을 통해 스페에르 러시아 공사에게 김홍륙을 교체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알렌은 이재순과 김홍륙의 불화는 피습으로 이어졌다고 추측했다.³⁸⁾

그 뒤 김홍륙은 8월 23일 탐오죄로 흑산도 유배형을 받자 9월 14일 고종을 독살하려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에 중추원 의장 겸 법무대신인 신기선은 9월 노륙법, 연좌법을 부활하려 시도했다. 독립협회는 보수파가 봉건 악법을 부활하려 한다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독립협회는 10월 2일 중추원 앞에서 민중대회를 열고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 뒤 독다사건에 연루된 궁중요리사가 옥중에서 고문으로 사망하자 독립협회는 강력하게 책임자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고종은 10월 11일 법무대신 신기선, 법무협판 이인우를 파면시켰고, 군부대신 심상훈, 탁지부대신 민영기를 해임시켰다. 또 스스로 사직한 의정부 의정 심순택과 함께 다시 10월 12일 의정부

참정 윤용선도 해임됐다. 그 결과 일곱 명의 대신들이 퇴진했다. 한편 고종은 독립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의정 서리에 박정양, 법무대신에 서정순, 군부대신에 민영환, 탁지부대신에 조병호 등을 임명했다.³⁹⁾ 박정양, 민영환은 독립협회가 강력하게 입각을 요구한 인물이었다.⁴⁰⁾

알렌은 노륙법 반대운동은 김홍륙 처벌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김홍륙이 과거 독립협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는 김홍륙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알렌은 한국인들은 독다사건 연루자들의 자백에 대해 잔인한 고문 탓으로 인식한다고 논평했다. 알렌은 독립협회 회원 수백 명은 고문 및 시신유기에 항의하여 밤낮으로 궁궐 앞에서 법무대신과 법무협판의 면직을 건의했으며, 시민들도 헌금을 바치고 철시하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다. 알렌은 노륙법 반대운동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했다. 첫째, 그는 독립협회가 강력한 정치단체임을 인정했다. 그는 법무대신, 궁내부대신, 탁지부대신, 군부대신 등 일곱명의 대신의 퇴진을 목격하고, 독립협회가 한국인의 다수를 대표하는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최근 서울은 강렬한 흥분의 시간을 보냈다. 대중의 요구로 내각의 완벽한 교체가 행해졌다. 평화적 혁명이 발생했다”고 인식했다. 그는 그같은 내각교체는 1894년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한 시기에 있었고, 1896년 파천때 세 각료의 잔인한 살해 뒤에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둘째, 알렌은 독립협회의 집회는 과거 한국이 보지 못했던 시위로서, 독립협회운동의 모든 것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조용히 행해졌다고 독립협회의 집회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⁴¹⁾ 알렌은 독립협회를 수준 높은 정치단체로 규정했고, 내각 교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36)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9, No. 128. 1898년 7월 24일, pp. 96~97.

37) 정교, 『대한계년사』 3, 소명, p. 26.

38) K-A-R III, No. 77. 1898년 2월 26일, pp. 47~48.

39) 신용하, “독립협회의 활동.” 『한국사』 41, 1999, p. 353.

40) K-A-R III, No. 77. 1898년 2월 26일, pp. 47~48.

41) K-A-R III, No. 152. 1898년 10월 13일, pp. 52~53.

3. 의회설립운동 평가

고종은 10월 20일 독립협회의 토론은 정치문제 이외의 것에 한정하며 그 집회는 독립관으로 한정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그 같은 조치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에 대해 독립협회는 10월 22일 만장일치로 국민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의 허락을 요구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3일 상소를 제출했다. 고종은 독립협회가 연속으로 4일을 철야하자 25일 언론과 자유를 허락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얻어냈고, 대중 회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대중 선거로 구성되는 입법기구의 창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⁴²⁾ 실제 독립협회는 10월 12일 개혁과 내각이 출범하자 정부에 공한을 보내 의회설립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5일 독립협회와 의회 설립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독립협회는 24일 의회로의 중추원 개편안을 작성했다. 중추원 개편안의 요지는 중추원을 상원으로 개편하고 의회의 입법권을 갖게 하고, 그 의원은 총 50명으로 하되 25명은 정부에서 추천하고 25명은 독립협회가 선출한 민선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황국협회에게도 민선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선의석 25명 중 17석을 독립협회에 배정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그 경우 독립협회는 총 의석의 1/3만을 갖게 되어 개혁추진은 어려웠다. 그에 불만을 가진 독립협회는 황국협회에 25석 모두를 배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의회를 담당할 능력이 없던 황국협회는 27일 민선의석 배정을 사양했다. 그에 따라 독립협회는 민선의석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⁴³⁾

알렌은 정부가 중추원 의원의 정원을 51명으로 하고 17명은 독립협회 인사,

17명은 정부 지명 인사, 17명은 보부상의 황국협회 지명인사로 구성하며,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를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할 방침을 정한 것을 인지했다. 알렌은 홍종우가 회장인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에 적대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고 인식했다. 알렌은 그 때문에 윤치호는 황국협회 인사 17명과 함께 구성될 부의장직을 사직했다고 판단했다. 알렌은 고종은 상기의 방침을 정한 뒤 집회를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하여 독립협회 해산을 기도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는 언론의 자유 투쟁을 전개하여 고종의 허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⁴⁴⁾ 알렌은 고종의 의중은 황실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를 창립하는 대신 독립협회를 해산하는데 있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는 고종이 황국협회를 통해 의회를 통제하려 한다고 추정했다. 한편으로 알렌은 독립협회는 지속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투쟁했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언론 자유의 획득은 국민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의 창립으로 나아갔다고 인지했다.

독립협회는 의회설립운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그 성과를 전국민적으로 굳건히 하고자 10월 28일 종로에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관민공동회는 10월 29일 헌의6조를 채택했고, 고종은 10월 31일 헌의6조를 재가했다. 박정양 내각은 11월 4일 중추원 신관제를 공포했다. 그러나 조병식 일파는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박정양, 윤치호를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하는 공화정 수립을 기도하고 있다고 참소했다. 그에 고종은 독립협회 간부들의 체포를 지시하는 한편 조병식을 의정부 참정, 민중목을 외부대신에 임명했다. 그 직후 경무청은 독립협회 간부 중 17명을 체포했다. 고종이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일공사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11월 5일부터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며 그같은 조치에 격렬하게 항거했다. 결국 고종은 10일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석방조치했다.⁴⁵⁾

알렌은 관민공동회에서 협의한 결과 헌의6조가 마련됐고, 고종은 며칠 뒤

42) K-A-R III, No. 154. 1898년 10월 27일, pp. 53~54.

43) 신용하, "독립협회의 활동." 『한국사』 41, 1999, pp. 355~374.

44) K-A-R III, No. 154. 1898년 10월 27일, pp. 53~54.

45) 신용하, "독립협회의 활동." 『한국사』 41, 1999, pp. 375~399.

의정의 제의로 헌의6조를 칙령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알렌은 조병식, 민중목의 입각과 독립협회 지도자 체포령은 수천 군중을 감옥에 집결시키는 등 대중적 흥분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알렌은 17명의 체포 지도자가 석방됐는데도 군중이 해산하지 않고 조병식 일파의 체포를 외치자 심각한 소요를 우려했다. 알렌은 관민공동회의 의장인 윤치호는 황제에 대한 존중의 규칙을 고수한 반면, 만민공동회 운동은 지도부의 통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국 정부에 11월 10일자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고했다.⁴⁶⁾ 11월 10일자 독립신문기사는 익명서 조작사건을 규탄하는 만민공동회의 상소, 군인들의 만민공동회장 난입, 시전상인의 철시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⁴⁷⁾

알렌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구분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정치활동을 개시할 무렵에 등장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정치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은 독립협회 의장인 윤치호의 지도하에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반면,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는 독립협회의 통제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여준다. 그같은 알렌의 인식은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개신교도들의 만민공동회에 대한 참가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여성운동 평가

알렌은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독립신문』은 1898년 4월 21일 여성도 교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설을 게재했다.⁴⁹⁾ 그 뒤 북촌의 양반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단체인 찬양회가 조직됐다.

찬양회는 회장 이양성당, 부회장 김양현당, 총무원 이창길당, 사무원 고정길당이었고, 회원은 300여명 정도였다. 찬양회는 9월 여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균등한 교육 기회, 평등한 직업 참여의 기회를 요구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했다. 또 여성 단체 찬양회는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여성 인재를 육성할 여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다.

찬양회 소속 부인들은 10월 11일 대궐문 밖에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여자를 가르치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구미 각국은 여학교를 설립하여 개명진보에 도달한 바, 한국에만 유독 여학교가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학부에 칙령을 내려 여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을 동양의 문명국으로 만들고 각국으로부터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상소를 올렸다.⁵⁰⁾ 그에 고종은 학부에 관립여학교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회의에서 부결됐다.

알렌은 한국여자들은 장옷과 가마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는 등 가장 엄중하게 격리됐으며,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폐쇄적 집단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이 모든 계층을 고무시킨 결과, 여성들도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즉 그는 수백 명의 여자들은 여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상소를 제출했으며, 고종도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⁵¹⁾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여성들에게도 권리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황제에게 여학교 설립을 건의하는 등 교육권 쟁취 투쟁에 돌입했다고 인식했다.

그 뒤에도 알렌은 여성의 동향을 주시했다. 부인 단체 찬양회는 사무소를 서울 매동의 찬양회 회장 이양성당의 자택으로 이전했다.⁵²⁾ 알렌은 10월 26일 독립협회 주도로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를 주목했다. 그 때 찬양회에서 선출된 13명의 위원들은 독자적인 집회를 열며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

46)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47) “부인 상소” 『독립신문』 1898년 10월 13일 잡보.

48) 한홍수,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사』 41, 1999, p. 231.

49) 『독립신문』 1898년 4월 21일 논설.

50) “부인 상소.” 『독립신문』 1898년 10월 13일 잡보.

51) K-A-R III, No. 152. 1898년 10월 13일, pp. 52~53.

52) “부인회 사무소.” 『독립신문』 1898년 10월 27일 잡보.

했다. 그는 그 집회에 대해 여성 클럽에서 선출된 13명의 위원들이 집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여자들이 격리된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놀랄만한 사건으로 평가했다.⁵³⁾ 이상과 같이 알렌은 한국의 여성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 고종의 독립협회운동 대응에 대한 평가

(1) 용병 고빙에 대한 평가

고종은 독립협회운동을 중식시키고자 군, 경에 강경 진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군, 경은 고종의 진압 명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종은 독립협회운동이 격화하는 정국에서 시위대의 충성심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상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고빙해서 친위대를 조직하고자 했다.⁵⁴⁾

독립협회를 비롯하여 의정부 대신들과 군경은 친위대 조직을 인지하고 크게 동요했다. 독립협회는 17일 대신들에게 항의서를 보내 누가 외국인을 서울에 오게 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용병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고, 고종도 외국인 고용의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통보했다. 독립협회는 18일에도 외부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외부대신에게 6가지 반대이유를 통보했다. 외부대신은 그 안건을 의정부에 제출했고, 의정부는 19일 만장일치로 용병 고빙을 반대했다. 그 결과 친위대는 복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해산됐다.⁵⁵⁾

외국인 용병부대의 창설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은 법무 고문 그레이트하우스였다.⁵⁶⁾ 그레이트하우스는 황제권 강화를 지지했고 러시아 공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⁵⁷⁾ 또 그는 1897년 러시아의 군사교관의 증파를 강력히 반대

했던 외부대신 이완용에 맞서 러시아의 군사교관의 증파를 지지했던 친러인사였다.⁵⁸⁾ 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립협회와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독립협회 타도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용병을 고빙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병의 숫자는 미국인 9명, 영국인 9명, 프랑스인 5명, 독일인 5명, 러시아인 2명이었다. 알렌은 용병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그레이트하우스의 외국인 용병 고빙 계획을 알지 못했다. 알렌은 과거에 그러한 목적으로 미국인들을 고빙 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비조직, 비훈련, 비통제의 집단은 큰 위협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외국인 용병들은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서울의 평화를 교란시킬 집단으로 지목했다. 알렌은 외국용병 고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다. 알렌은 물론 외교사절들도 용병 고빙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용병은 그들 국가의 영사의 지시에만 복종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외국사절들은 그레이트하우스를 맹렬히 비난했다.⁵⁹⁾

알렌은 종래 그레이트하우스로부터 미국인 용병부대의 창설을 제의받은 듯하였다. 그러나 알렌은 외국인 용병부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렌은 외국인 용병부대의 창설을 주도한 사람이 미국 국적인 그레이트하우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알렌은 그레이트하우스의 계획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지시와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았다. 즉 미국 정부는 그레이트하우스 건과 관련하여 알렌에게 한국 거류 미국인에게 한국의 정치문제에 개입하거나 한국의 내정에 대한 의견 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⁶⁰⁾

53)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54)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상)』, 서울: 일조각, 2006, pp. 415~417.

55) 『프랑스문서』 8, 1898년 9월 20일, pp. 223~224.

56) 『대한계년사』 3, pp. 148.

57) 『개화기의 한미관계』, pp. 314.

58) 『일사기록』 12, 기밀 제30호, 1897년 5월 25일, pp. 274~275.

59) K-A-R III, No. 145. 1898년 9월 17일, p. 50.

60) K-A-R III, No. 96. 1898년 9월 22일, p. 50.

(2) 보부상 동원에 대한 평가

고종은 외국인 용병부대의 창설이 무산되자 보부상을 이용하여 독립협회를 해산하고자 했다. 그에 고종은 보부상 지도자 이기동에게 보부상을 기반으로 황국협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⁶¹⁾ 한편 서울 시민들은 독립협회를 복설하고, 헌의 6조를 실행시키고, 익명서를 조작한 수구파를 숙청하고자 11월 11일 만민공동회를 재개했다. 그에 맞서 길영수, 이기동은 16일 보부상을 소집했다. 보부상은 18일 입경한 뒤 21일 인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 분노한 서울시민들은 22일 보부상을 공격했다. 그때 군인들은 만민공동회에 동정을 표시하며 무력진압을 거부했다. 그에 놀란 고종은 22일 독립협회를 복설시키는 한편 각국 공사를 궁궐에 초대했다. 시민들은 23일 일시 해산한 뒤 26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재개했다. 그날 고종은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대표들을 돈례문(경운궁 남문)으로 소집했다.⁶²⁾ 동시에 고종은 외교사절을 같은 장소로 불러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운동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그러므로 외교단의 최고참인 알렌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무렵 알렌은 서울의 상황과 자신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국 정부에 보고했다.

알렌은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자 신뢰할 수 없는 군경을 제쳐놓고 보부상을 동원했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고종이 보부상에게 특권 부여를 약속하고 서울로 집결시켜 독립협회를 습격했다고 판단했다. 알렌은 만민공동회운동에 대해 외세의 사주를 받지 않은 순수하게 한국의 자생적 운동으로 평가했다. 알렌은 만민공동회와 보부상의 충돌에 대해 한국의 국내문제로 인식했으므로 고종의 자문 요청을 거부했고, 미군을 서울에 주둔시키자는 고종의 제의도 거부했다. 알렌은 소요의 책임이 고종의 보수적인 조병식 일파 비호와 보부상 동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알렌은 보부상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피해를

보았다며 우회적으로 보부상의 행태를 비난했다.⁶³⁾ 결국 고종은 알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다섯 대신의 처벌, 보부상 폐지, 헌의 6조 실행 등을 약속했다.⁶⁴⁾

고종은 만민공동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뜻으로 중추원관제를 실시하고자 11월 29일 중추원 의관 50명을 지명했다. 그러나 고종은 직접 제시한 국정개혁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보수파를 중용하며 반격을 기도했다. 고종은 10일이 지나도록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에 수만의 서울 시민들이 12월 6일부터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만민공동회는 다섯 대신의 처벌, 보부상 폐지, 헌의 6조 실행을 상소했다. 그러나 조병식 일파는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 모의한다고 참소했다. 고종은 재차 보부상을 소집하는 한편 중추원을 열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요구사항을 다루게 하고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에 따라 12월 15일 중추원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 중 독립협회 출신 의관은 정부 대신에 입각할 인재를 추천하자고 제의했고, 11명의 대신 후보자가 천거됐다. 그러나 고종은 체일 망명자 박영효가 명단에 포함되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종은 12월 23일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켰고, 25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불법화시켰다.⁶⁵⁾

알렌은 고종이 헌의 6조의 실시, 독립협회의 복설, 보부상 해산령 등의 개혁을 약속한 11월 26일 이후 고종의 동향과 만민공동회의 운동 방향을 주시했다. 다음은 알렌이 본국 정부에 보고한 서울의 상황이다.

황제는 외교사절들 앞에서 군중에게 약속한 바 있는 개혁을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서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군중은 재차 공공집회의 개최를 시작했다. 지난 2주 동안 한국에는 중앙정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매일같이 대신은 교체됐고 각 부서는 폐쇄되어 공공업무는 중단됐다. 서울의 여론은 고종의 조치에

61) 정교, 『대한계년사』 3, 소명, p. 133.

62) 신용하,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한국사』 41, 1999, pp. 400~412.

63) K-A-R III, No. 162. 1898년 11월 28일, pp. 56~57.

64) 신용하,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한국사』 41, 1999, p. 412.

65) 신용하,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한국사』 41, 1999, pp. 412~432.

분노하는 분위기로 돌아왔다. 그러나 보부상의 공격 이래 큰 무질서는 없었다. 지방의 조세수입은 들어오지 않아 재정은 고갈됐다. 군인과 관리봉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군인은 큰 소요를 일으킬 것이 예상됐다. 서울에는 그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올 지혜롭고 청렴한 관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소요를 야기한 자들의 지지로 황후 승격을 추구하는 엄비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황제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고종은 친절하고 잘못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쉽게 타인의 영향을 수용한다. 을미사변 뒤 황제는 일정한 정책이 없는 것 같다. 황제는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할 세력에 휘둘리고 있으며 우유부단하다.⁶⁶⁾

알렌은 고종이 외교사절단과 만민공동회에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은 항의의 표시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결과 한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했다. 알렌은 한국에는 난국을 해결할 총명하고 청렴한 인재가 있지만 고종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알렌은 고종이 수용해서는 안 될 부패한 관료들의 의견에 크게 의존한다고 인식했다. 알렌은 고종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을 난국으로 이끄는 주요인이라고 평가했다.

(3) 친러파 중용에 대한 평가

독립협회는 10월 말 국권수호와 민권보장을 기치로 운동을 전개하여 의회를 설립하게 하고, 국정개혁안인 헌의육조를 채택하게 했다. 그러나 조병식을 비롯한 친러파는 독립협회가 황제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모의한다는 ‘익명서사건’을 조작했다.

알렌은 고종의 충애를 받는 조병식의 동향을 주시했다. 알렌은 종래 조병식을 악명높은 인물로 지목한 바 있었다.⁶⁷⁾ 알렌은 조병식 일파는 대중 집회의 파괴를 추구한다고 인식했다. 그는 사악한 조병식 일파는 헌의6조를 칙령으로 공포하자 고종에게 독립협회의 진정한 목표는 한국을 공화정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참소했다고 파악했다. 알렌은 조병식 일파는 독립협회가 박정양, 윤치호를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추대하며 대통령선거를 요구한다는 플래카드를 날조했다고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의 동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정 아이디어는 사악한 자들의 조작이라고 확신할 것이라며 사건의 조작을 단정했다.⁶⁸⁾

고종은 ‘익명서사건’을 인지한 직후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⁶⁹⁾ 아울러 고종은 11월 5일 친러 성향의 조병식을 법무대신, 민중목을 외부대신에 임명하였다. 그에 대해 알렌은 본국 정부에 고종은 부패하고 무도한 조병식을 수상, 문제 많은 민중목을 외부대신에 임명했고, 조병식 일파는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수천 군중이 체포당한 지도자와 함께 수감될 것을 요구하자, 고종은 민중목을 면직했다고 파악했다. 알렌은 사악한 조병식파가 해고되기는 했으나 궁궐에 남아 고종에게 영향력을 행사 중이라고 단정했다.⁷⁰⁾ 알렌은 고종이 조병식 일파를 크게 신임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는 고종이 조병식 일파가 독립협회의 공격으로 면직되더라도 측근에 두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알렌은 조병식 일파를 사악하고 부패하며 무도한 사람들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도 알렌은 조병식 일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그에 따라 알렌은 조병식 일파를 축출하고자 시도했다. 즉 알렌은 11월 14일 고종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새로 지명된 친러파 고관들을 면직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궁궐에 피신중이다. 11월 23일 내각은 총사직했다. 고종은 그 소요를 야기한 친러파를 궁궐에 잔류시켰다.⁷¹⁾

알렌은 과거 한국 정부의 탐관오리 숙청안을 지지한 바 있었다.⁷²⁾ 알렌은

66) K-A-R III, No. 167. 1898년 12월 23일, pp. 57~58.

67) K-A-R III, No. 131. 1898년 8월 4일, p. 49.

68)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69) 『고종실록』 권37, 광무 2년 11월 4일.

70)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71) K-A-R III, No. 162. 1898년 11월 28일, pp. 56~57.

72) 『개화기의 한미관계』, p. 312.

시종일관 보수파의 지도자인 조병식을 사악하고 부패하며 무도한 인물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알렌은 조병식 일파가 한국의 진보를 저지하는 집단으로 인식한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알렌은 조병식 일파를 비호하는 고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알렌은 고종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고종에 대해 비판적 입장도 표출했다. 알렌이 고종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보였던 것은 자신에게 자주 내정, 외교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미국에 여러 이권을 허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알렌은 고종이 수구반동적인 측근들을 기용하여 한국의 진보를 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그는 고종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IV. 독립협회운동 대응

1. 각국 공사의 독립협회운동 대응

한반도에 체류하던 외교사절들은 독립협회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러시아 공사관은 독립협회를 반러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경계했다. 특히 스페에르 공사는 미국 공사관과 미국인 선교사들이 독립협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미국인의 이권획득을 방해하였다.⁷³⁾ 또 스페에르는 알렌에게 궁내부 고문 르장드르(Charles W. LeGendre), 군부 고문 닌스테드(Ninsted) 등의 미국인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에 대해 알렌은 세 명을 적극 변호했다. 알렌은 닌스테드가 건강상 사유로 자택에 칩거 중이라고 해명했

다. 그러자 스페에르와 플랑시는 르장드르를 불신한다고 통보했다. 알렌은 르장드르에 대해 프랑스 태생으로서 러시아, 프랑스 공사관의 후원으로 고문의 재계약에 성공하는 등 러, 프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알렌은 르장드르가 독립협회와 친밀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⁷⁴⁾ 실제 궁내부 고문 르장드르는 황제권을 강력히 수호하고자 진력한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는 시종 독립협회에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898년 5월 11일 플랑시 공사는 한국 외부에 평양 광산의 허여를 요구했다. 그 때 독립협회 계열의 『매일신문』은 프랑스 공사를 격렬히 비난하며 한국인은 그 요구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 중 격양한 독립협회는 외부에 서한을 보내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⁷⁵⁾ 그에 맞서 플랑시는 러시아와 연합하여 고종에게 강경 진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본 공사관은 처음에는 독립협회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독립협회가 계속해서 러시아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조병식민종묵 등 친러세력의 퇴진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가토 일본공사는 독립협회 주최의 경축식에 외교사절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할 정도였다.⁷⁶⁾ 그러나 일본은 점차 독립협회운동을 한국 진출에 장애물로 인식하여 독립협회를 경계하였다.⁷⁷⁾

영국 공사관은 러시아 공사관이 독립협회를 적대시한 것과는 달리 독립협회를 동정했다.⁷⁸⁾ 영국이 독립협회에 대해 호의를 보인 이유는 독립협회가 계속해서 조병식·민종묵 등 친러파의 퇴진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던(J.N. Jordan) 영국공사는 고종이 독립협회의 해산을 결심하

73) 『러시아문서요약집』, 1898년 2월 26일, p. 377; K-A-R III, No. 22. 1897년 10월 16일, p. 33; *ibid.*, No. 89. 1898년 3월 19일, pp. 42-43.

74) K-A-R III, No. 77. 1898년 2월 26일, pp. 47-48.

75) 『매일신문』 1898년 5월 16일, 5월 17일 <잡보>.

76) K-A-R III, No. 33. 1897년 11월 13일, p. 47.

77) 신용하, 『독립협회연구(상)』, 서울: 일조각, p. 374.

78) 『일사기록』 13, 기밀 제36호, 1899년 5월 17일, pp. 276-281.

고, 영국공사관에 친서를 보내 영국의 지원과 중재를 요청했을 때 알렌과 같이 무력 진압을 반대했다.⁷⁹⁾

주한 미국공사는 상기의 외교사절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알렌은 스스로 다른 외교사절들과 친밀하다고 보고했다.⁸⁰⁾ 알렌은 미국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베베르 공사와의 친교한 바 있었으나,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스페에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으로 규정했다.⁸¹⁾ 마튜닌은 러시아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이 철수한 뒤 한국 정치에 개입을 자제했다. 그는 알렌에게 미군 경비를 제의했으나 알렌은 거부했다.⁸²⁾ 알렌은 조던 영국공사와의 친교를 유지했고, 그 매개는 브라운이었다. 알렌은 브라운에 호의적이었다.⁸³⁾ 알렌은 영국 공사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갔다.

2. 주한 미국공사의 독립협회운동 대응

주한 미국공사는 독립협회운동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미국 정부는 1896년 1월 11일 실 공사에게 한국 거류 미국인에게 한국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국의 국내 정책에 대해 의견 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⁸⁴⁾ 알렌도 미국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했지만 독립협회운동에 대해 나름대로 자율적인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그는 노륙법 정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침을 준수했다. 독립협회는 김홍륙의 독다 연루 자백을 잔인한 고문 탓으로 단정하고 1898년 9월 법무대신과 법무협관의 면직을 건의했다. 외교사절들도 10월 한국 정부에 법무대신의 면직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했다. 그러나 알렌은 법무대신의 면직을

79) 『러시아문서요약집』, 1898년 11월 1일, p. 16; 『일본외교문서』 31-2, 1898년 12월 13일, pp. 432-496.

80) K-A-R III, No. 77. 1898년 2월 26일, pp. 47-48.

81) 『개화기의 한미관계』, p. 312.

82) K-A-R III, No. 116. 1898년 6월 24일, pp. 48-49.

83)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8, No. 162. 1897년 10월 24일, p. 393.

84) K-A-R III, No. 96. 1898년 9월 22일, p. 50.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같은 공조에 대해 미국을 독립협회 노선에 줄 세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자평했다.⁸⁵⁾ 알렌은 법무대신의 면직을 요구하는 외교단의 공동행동에 동참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외부에 항의했다.⁸⁶⁾ 그것은 그가 미국 정부의 한국 내정 개입 자체 지시를 준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알렌은 11월 5일부터 개시된 만민공동회 정국에 처해서는 나름대로의 대응을 보였다. 고종은 공화정 익명서 사건을 계기로 독립협회 간부들의 체포를 지시하는 한편 조병식을 의정부 참정, 민종묵을 외부대신에 임명했다. 그 직후 경무청은 독립협회 간부 중 17명을 체포했다. 고종이 그같은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러, 일공사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11월 5일부터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며 그같은 조치에 격렬하게 항거했다.

그런 중 민종묵은 각국 공사관에 무력진압 의사를 타진했다. 그에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11월 6일 알렌을 방문하여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 진압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군대가 무력해산을 도모할 경우 대규모 소요를 야기하여 무법강도가 서울 각처에 분산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공격할 것이라 호소했다.⁸⁷⁾ 알렌은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중재하고자 진력했다. 한편 조던은 같은 날 서울 거주 영국인의 비슷한 호소를 듣자 알렌을 방문했다. 그 직후 영, 미공사는 함께 러시아 공사를 방문했다. 마튜닌은 감옥에 집결한 군중 해산에 무력 사용을 지지하지만 유혈사태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그 의사를 외부대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알렌은 스스로 외교사절 중 최고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7일 조던과 함께 민종묵을 방문하여 그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은 외부대신 민종묵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민회를 억압할 경우 외교사절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했다. 민종묵은 군중에게 충

85) K-A-R III, No. 152. 1898년 10월 13일, pp. 52-53.

86) K-A-R III, No. 107. 1898년 11월 14일, p. 51.

87) 『대한계년사』 4, pp. 40-41.

분한 고지를 주기 전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했다. 그러나 그는 고종에게 보고를 전달하지 않았다.⁸⁸⁾ 그러므로 고종은 알렌이 가장 강경한 조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믿는 등 알렌의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알렌의 말을 황제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내용을 크게 변질시켰기 때문이었다. 고종은 만민공동회의 무력진압을 검토했다.⁸⁹⁾

알렌은 3일 뒤 군중에 무력을 사용하고자 군사에 대한 지식없는 인물을 재판관에서 제1연대장에 지명했다고 판단했다. 조던은 알렌에게 항의차 황제를 알현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알렌은 일본 공사의 지지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부했다. 또 그는 러, 프공사에 대하여 영, 일공사와 같은 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으로 고종의 면담을 요청하자고 제의했다. 황실은 알렌에게 민중목이 알렌은 무력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거짓 보고했다고 통보했다. 결국 10일 민중목은 면직됐고 박제순이 외부대신에 재기용됐다.⁹⁰⁾

이상과 같이 알렌은 11월 5일 만민공동회가 재개됐을 때 무력 진압을 반대했다. 알렌은 만민공동회를 지원할 의사는 없었다.⁹¹⁾ 알렌이 무력 사용을 반대한 것은 바로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알렌은 조던과 공조하여 고종에게 강력한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무력 진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며⁹²⁾, 독립협회 간부 17명에 대한 석방 조치도 이끌어냈다.

이후 만민공동회는 구속된 지도자들의 석방과 독립협회의 복설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고종의 지시를 받은 보부상이 21일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자, 민중은 대신들의 저택을 습격하였다. 고종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22일 독립협회 대책에 대한 지문을 구하고자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했다. 러시아 공사 마튜닌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고종이 외국사절들에게 독립협회 무력 진압의 책임을 분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⁹³⁾ 그에 비해 일본 대리공사는 고종에게 만민공동회에 대한 무력 진압을 권고했다. 그는 고종이 영미공사를 의식하여 무력 사용을 망설이자 영미공사를 적극 설득하였다.⁹⁴⁾

알렌은 고종에게 “미국은 민주국으로서 민론 중시를 국시로 한다. 과거 미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민론을 진압한 사관을 처형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만민공동회에 대한 무력 진압을 반대했다.⁹⁵⁾ 알렌은 보부상의 군중 공격으로 미국인이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강력히 항의했다.⁹⁶⁾ 조던은 소요가 발생한 원인은 고종이 약속한 개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또 그는 고종이 황궁에 은신중인 친러파 대신들의 충고로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조던은 22일 알현 석상에서 고종에게 정부가 보부상을 동원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⁹⁷⁾ 플랑시는 조던과는 달리 보부상 해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같은 플랑시의 태도는 보부상의 무력사용으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기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종의 무력사용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결국 11월 22일의 회동에서 외교사절들은 무력 진압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했다.⁹⁸⁾ 그 회동에서 미, 영공사는 보부상의 무력 사용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같은 항의는 독립협회에 대한 더 이상의 무력사용을 저지한 것으로 보였다.

88)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대한계년사』 4, pp. 40~41.

89) 『프랑스문서』 8, 1898년 11월 16일, pp. 229~230.

90)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91) 정교, 『대한계년사』 4, 소명, 2004, p. 52.

92)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93) 『日本外交文書』 31-2, 1898년 11월 23일, p. 415; 같은 책, 1898년 11월 28일, p. 423.

94) 『일사기록』 12, 기밀 제54호, 1898년 12월 10일, pp. 453~454; 『일사기록』 12, 기밀 제55호, 1898년 12월 13일, pp. 455~456.

95) 『일사기록』 12, 기밀 제54호, 1898년 12월 10일, pp. 453~455.

96) K-A-R III, No. 162. 1898년 11월 28일, pp. 56~57.

97) 『한영외교사관관계자료집』 9, No. 2, 1898년 11월 25일, pp. 131~133.

98)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하)』, 서울: 일조각, p. 651.

서울 시민들은 23일 일시 해산한 뒤 26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재개했다. 그 날 고종은 외교사절을 초대하여 그에 대한 지문을 요청했다. 외교사절들은 마티닌을 제외하고 모두 궁궐로 갔다. 고종은 외교사절 앞에서 현의6조의 실시, 독립협회의 복설, 보부상 해산 등을 약속했다. 알렌은 황제의 약속으로 한국은 평온하다고 평가했다.⁹⁹⁾ 또 알렌은 러, 일공사는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Lobanov-Yamagata Protocol)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¹⁰⁰⁾

고종은 11월 26일 직접 제시한 국정개혁의 약속을 어기고, 반격을 기도했다. 이에 맞서 수만명의 서울 시민들이 12월 6일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¹⁰¹⁾, 독립협회도 고종의 약속 불이행에 분개하여 상소를 제출했다.¹⁰²⁾ 미국인 선교사들은 독립협회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한국인 개신교도들에게 독립협회의 참석을 권고했다.¹⁰³⁾ 그 결과 미국 선교회 소속의 한국인 개신교도들은 12월 9일과 10일 개최된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다.¹⁰⁴⁾ 그에 대해 독립협회에 비판적인 플랑시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소요의 책임을 돌렸다. 플랑시는 개신교 선교사들은 청년단체를 독려하고 정치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신도들을 지나치게 흥분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플랑시는 개신교도들은 경솔하게도 외국인이 함께 하므로 면책이 주어질 것으로 자만한다고 비판했다.¹⁰⁵⁾

보부상 지도자 길영수는 정동교회에 편지를 보내 개신교도는 독립협회같은 역적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보부상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도를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렌은 즉각 외부에 조회하여 길영수 편지 건을 상세히 조사할

99)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100) K-A-R III, No. 162. 1898년 11월 28일, pp. 56~57.

101) 최형익,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구한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정신문화연구』 96, 2004, pp. 200~201.

102)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9, No. 5. 1898년 12월 6일, p. 136.

103) 『개화기의 한미관계』, p. 313.

104)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p. 124.

105) 『프랑스문서』 8, 1898년 11월 16일, pp. 229~230.

것을 요구했다.¹⁰⁶⁾ 개신교도들도 10일 경무사 이근호에게 길영수의 체포를 요구했다. 고종은 개신교도가 만민공동회를 후원할 것을 우려하여 알렌에게 무마를 부탁했다.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지했다. 알렌은 미국인의 재산에 대한 위협이 행해지자 개신교도들의 집회 참가를 저지하고자 했다.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에게 1897년 5월 11일 미 국무성이 보낸 회람의 준수를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하며 교도에 대해 엄중 단속을 요구했다. 또 개신교도에게는 경무청 집회 참여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알렌은 외부에 길영수건에 대해 더 이상의 취조를 중단하도록 부탁했다.¹⁰⁷⁾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미국인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자 미국인 선교사는 물론 한국인 개신교도들의 만민공동에 참가를 강력 저지했다. 또 그는 길영수측의 협박 편지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 길영수는 보부상 두령으로서 고종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인사였다. 그러므로 알렌이 길영수측의 협박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를 중지시킨 것은 황제와의 관계 악화를 저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마티닌은 독립협회운동이 격화되자 개입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본 공사에게 러시아와 일본이 수수방관할 경우 영국과 미국이 개입하여 한국에서 세력을 부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일이 공동으로 개입하여 독립협회를 무력 해산시킬 것을 제의했다.¹⁰⁸⁾ 한편 가토 마쓰오(加藤増雄) 주한 일본공사는 10월 13일 휴가차 귀국했다가 12월 13일 한국으로 귀임한 뒤 15일 고종에게 15일 국서를 봉정했다. 알렌은 일본 공사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그 때 일본 정부는 가토를 변리공사에서 전권공사로 승진시켰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독립협회 대응 변화를 알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었다.

106) K-A-R III, No. 161. 1898년 11월 14일, pp. 54~55; 『대한계년사』 4, pp. 181~182.

107) K-A-R III, No. 167. 1898년 12월 23일, pp. 57~58; 『대한계년사』 4, p. 194.

108) 『일본외교문서』 31-2, 1898년 12월 13일, p. 432.

가토는 12월 15일 장시간의 알현 때 군중에게 한 약속을 수행할 때까지 군중에 게 무력해산을 반대했다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또 그는 황제에게 일본정부는 망명자 귀국을 불허를 약속했다. 며칠 전에 박영효의 체포포 도착설이 유포됐다. 그는 애국자, 능력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군중은 그의 등용을 상소했다. 황제는 상소서명자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마튜닌은 자주 로바노프-아미가타 의정서에 '불만을 표명하며 그 협정을 무시하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가토는 거부했다. 일본 군대가 한국내 일본인을 보호한다. 일본은 한국 내 많은 추종 관료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점차 영향력을 강화중이다. 한국인들이 몇몇 열망을 의지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은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더 악화되고 있다.¹⁰⁹⁾

알렌은 가토 공사가 마튜닌 공사의 공동 개입 제의를 거부하는 한편 고종에게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해산을 반대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알렌의 추측과는 달리 가토는 고종에게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 해산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고종에게 일본도 메이지유신 초반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민회를 진압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협회 해산을 권고하였다.¹¹⁰⁾

한편 미국 정부는 21일 알렌에게 독립협회에 대한 훈령을 주었다. 알렌은 미국 정부의 훈령을 받아 종전의 입장을 바꿔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을 지지했다.¹¹¹⁾ 알렌의 입장 변화는 고종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고종은 그 직후인 23일 시위대에게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 해산을 지지했고, 25일에는 독립협회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알렌은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를 외곽에서 지원한 만민공동회운동을 순수히 한국 내부의 문제라 인식하고 그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황실의 무력 진압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가져온다고 보아 반대했다. 또 그는 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개신교도들의 만민공동회 참가를 반대했다.

109) K-A-R III, No. 167. 1898년 12월 23일, pp. 57~58.

110) 『대한계년사』 4, p. 220.

111) 신용하, 『독립협회연구(하)』, 서울: 일조각, p. 518.

V. 맺음말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에서 유학한 경력과 주미공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또 그는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을 모델로 서구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나아가 그는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이권 허여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했다.

알렌은 고종과 독립협회가 협력관계에 있을 때 독립협회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알렌이 그동안 미국에 이권을 허여해 온 고종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독립협회가 황제와의 타협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것을 기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알렌은 독립협회의 황제권 도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독립협회 급진파는 황제 측근인 이용익의 숙청을 시도한다고 단정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는 급진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알렌은 독립협회 의장인 윤치호의 지도하에 열린 집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반면,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는 독립협회의 통제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알렌은 노륙법 반대운동을 통해 독립협회가 강력한 정치단체로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를 수준 높은 정치단체로 규정했고, 내각 교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으며, 언론 자유의 획득은 국민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의 창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여성들에게도 권리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고종의 용병부대 창설에 대해 통제 불능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알렌은 용병부대 창설의 주도자가 미국 국적인 것을 인지했지만 용병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알렌은 만민공동회운동에 대해 외세의 시주를 받지 않은 순수하게 한국의 자생적 운동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알렌은 만민공동회를 지원할 의사는 없었다.

알렌은 외부대신 민중들에게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알렌이 무력 사용을 반대한 것은 바로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조던과 공조하여 고종에게 강력한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무력 진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독립협회 간부 17명에 대한 석방 조치도 이끌어냈다.

이후 고종의 지시를 받은 보부상이 11월 21일 만민공동회를 습격하자, 군중은 대신들의 저택을 습격하였다. 고종은 22일 독립협회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했다. 알렌은 만민공동회와 보부상의 충돌에 대해 한국의 국내문제로 인식했으므로 고종의 자문 요청을 거부했고, 미군을 서울에 주둔시키자는 고종의 제의도 거부했다. 그러나 알렌은 보부상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부상 동원을 반대했다. 알렌은 고종에게 미국은 민론 증시를 국시로 하며, 과거 미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민론을 진압한 사관을 처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만민공동회에 대한 무력 진압을 반대했다. 영국 공사도 보부상의 무력 사용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 같은 항의로 독립협회에 대한 더 이상의 무력사용이 저지될 수 있었다.

고종은 11월 26일 직접 제시한 국정개혁의 약속을 어기고, 반격을 기도했다. 이에 맞서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12월 6일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알렌은 고종이 외교사절단과 만민공동회에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서울 시민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결과 한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그에 대해 알렌은 고종이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조병식 일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알렌은 고종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고종에 대해 비판적 입장도 표출했다. 알렌이 고종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보였던 것은 자신에게 자주 내정, 외교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미국에 여러 이권을 허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알렌은 고종이 수구반동적인 측근들을 기용하여 한국의 진보를 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알렌은 특히 조병식 일파가 한국의 진보를 저지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알렌은 고종은 난국을 해결할 총명하고 청렴한 인재를 외면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알렌은 일본의 한반도 침투를 견제하고자 친러시아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한국의 국력 약화는 일본의 한반도 침투를 가속화시켜 미국의 국익을 잠식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알렌은 고종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미국인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자 미국인 선교사는 물론 한국인 개신교도들의 만민공동회 참가를 강력 저지했다. 알렌은 21일 미국 정부의 훈령을 받아 종전의 입장을 바꿔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을 지지했다. 알렌의 입장 변화는 고종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그 직후인 23일 시위대에게 독립협회에 대한 무력 해산을 지시했고, 25일에는 독립협회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미국, 영국, 일본 공사는 독립협회운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독립협회 지도부가 대체로 영, 미, 일에 우호적이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공사급의 외교관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였다. 영, 미 공사는 시종 독립협회를 동정했고, 러, 프는 시종 독립협회를 반대했다. 일본은 점차 독립협회운동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이 만민공동회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급진파가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황제권에 정면 도전하자 독립협회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버리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독립신문』.
 『매일신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문서 미안』, 1968.
 _____,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1968.
 정교, 『대한계년사』 3, 소명, 2004.
 정교, 『대한계년사』 4, 소명, 2004.
 『영국외무성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9, 서울: 동광출판사, 1997.
 박종효 옮김, 『러시아 독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국사편찬위원회 옮김, 『프랑스외무부문서』 8, 2009.
 국사편찬위원회 옮김, 『프랑스외무부문서』 9, 2010.
 『일본외교문서』, 일본외무성 편, 198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1~15,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중현 옮김, 『러시아문서 번역집』 2, 서울: 선인, 2011.
 이원용 옮김, 『러시아문서 번역집』 3, 서울: 선인, 2011.
 이원용 옮김, 『러시아문서 번역집』 4, 서울: 선인, 2011.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신용하,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한국사』 41, 1999.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상)』, 서울: 일조각, 2006.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하)』, 서울: 일조각, 2006.
 이민원, “독립협회에 대한 열국공사의 간섭.” 『청계사학』 2, 청계사학회, 1985.
 임경석 편, 『한국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홍수,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사』 41, 1999.
 해링턴, 『개화기의 한미관계』, 서울: 일조각, 1973.
 Burnett, Scott S.,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I(1896~1905)*,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ABSTRACT

Understanding and Responce of the U.S. Ministers to the Great Han Empire toward to movement of Independence Club

Hyun, Kwang-Ho(Sungkyunkwan University)

Russian diplomat Ministers to the Great Han Empire supported disband of Independence Club. But the U.S. Ministers to the Great Han Empire expressed sympathy with Independence Club.

The U.S. Ministers to the Great Han Empire Allen rated high that Independence Club Western Reform. Allen recognized that Independence Club high quality political body and he rated political power of Independence Club.

Allen Independence Club inspired suffrage. Allen expected that Independence Club reached the goal by agreement with emperor. Therefore Allen expressed negative angle to defiance of Independence Club against royal authority.

King Kojong mobilized for disband of the nation assembly. Allen objected use of force against the whole nation assembly. It was for protection of American citizen that Allen objected use of force against the whole nation assembly. Allen regarded Cho Pyung Sik, leader of the pro-Russian group as notorious man.

Allen checked strongly that American missionary and korean Protestants joined the whole nation assembly. U.S. Government gave instruction for disband of Independence Club to Allen in December 21. He supported disbanof Club. King Kojong took advice of Allen usually. Therefore hardline stance of Allen toward Independence Club affected King Kojong.

Keywords : Allen, King Kojong, Independence Club, the whole nation assembly, U.S., woman suffrage, royal authority, Cho Pyung Sik, peddler, missionary, Protestants.

투고일 : 2014년 10월 29일, 심사일 : 2014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일